



남원시 민원실 직원 대상 친절 교육

남원시는 9일 시민행복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정현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을 초빙해 친절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 김정현 위원장은 의정활동중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야기와 민원실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김 행정위원장은 "2주 연속 계속되는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의 밝은 인사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시원한 청량음료처럼 느껴지고 민원인들의 마음을 녹이는 마법사와 같다"면서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게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실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는 민원인과 직원이 함께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자원센터, '봉사천사 행복밥상' 진행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 지역 내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는 '봉사천사 행복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편한세상, 평화의집 장애인 및 남원시 가족센터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100가구에 추어탕 꾸러미를 전달하였고, 추석에는 명절 밑반찬을 만들어 취약계층 150가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북북도자원봉사센터의 지역 밀착형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인 시·군센터 자원봉사 신규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진행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맞춤형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주주 시민소통실장은 함께하는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소통하는 남원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자원봉사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행복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교월동, 출생신고 가정에 '아기 달력' 선물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이영복)가 9일 출생신고 한 가정에 이색 선물을 전달해 화제다. 아기와 가족사진이 들어간 달력을 제작해 기저귀, 치발기 세트, 물티슈 등 육아용품과 함께 전달하는 이 특별한 선물은 저출생·고령사회 극복 및 인구의 중요성에 대한 민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됐다. 교월동 아기 달력 선물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민관협업사업으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최창의), 지역발전협의회(회장 홍종식),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순임), 통장협의회(회장 양관용) 등 8개 사회단체의 후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교월동에 출생신고를 하고 담당자에게 신청서와 사진만 보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월동에서는 2023년 7월까지 출생한 셋째 아동을 대상으로 축하 떡케이크와 아동 낚시 이불 세트를 제공하는 교월동, 다동(3개) 출생 축하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는 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이영복 교월동장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의 출생을 함께 기뻐하고 공동육아 분위기를 조성하는 교월동 아기 달력 선물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출산 장려와 김제시의 인구 문제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시장이 전하는 '나의 성장노트'

정현을 시장, 익산고서 초청 강연 "청소년기, 자신만의 나침반 세공 시기 경주마 타고 달리는 기수가 되어달라"

정현을 익산시장이 9일 익산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전하는 강연을 했다. 익산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정 시장은 나의 성장노트(부제 익산시장 정현을의 성장기록)라는 주제로 자신의 청소년기와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8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내며 스스로를 다지고 좌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 시기에 가져야 할 인생관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정 시장은 "청소년기에 무작정 달리기보다 자신만의 나침반을 세공하는 시기"라며, "눈을 가리고 달리는 경주마가 아니라 그 위에 타고 달리는 기수가 되어달라"는 본인의 철학을 밝혔다. 한 1학년 학생은 "시장님을 처음 봤는데 친근함을 느



겼고 시장님처럼 멋지게 삶을 개척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목적 없이 공부만 하고 있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평호 익산고등학교 교장은 "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며 "많은 것을 흡수하는 학창 시절에 시장님을 초청한 것은 학생들의 인생에도 큰 의미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무호흡 발생시 보호자에게... 영아 돌연사증후군 예측 연구 '우수'

전북대 조송이 연구원, ICT플랫폼학회 우수논문상 호흡소리 기반 비상 감지시스템 개발 관련

전북대학교 조송이 연구원(소프트웨어공학과 지도교수 조재혁)이 영아 돌연사증후군을 감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연구 논문으로 ICT플랫폼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조 연구원은 '소리패턴을 이용한 영아돌연사증후군 감시 및 예측' 논문을 발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연구는 영아 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술인 '호흡소리 기반 비상 감지시스템' 개발에 관한 것으로, 수면 중 무호흡이 발생하면 보호자에게 즉각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이는 영아 및 어린이까지 포함해 호흡 소리 데이터를 다수 수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상 상황을 감지한다. 이후 적절한 순환신경망(RNN)과 장단기메모리(LSTM) 등



의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이를 토대로 모델을 선정해 실제 영아 수면 호흡 소리에 대입하면 무호흡이 감지된다. 조 연구원은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노력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며 "이 기술의 보급으로 더 많은 영아들의 안전한 성장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정읍 시기동주민센터, 경로당서 어르신들과 소통

정읍시 시기동주민센터는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9일 시기동 경로당 11곳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수박을 전달했다. 이날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냉방기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예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비싼 일정에도 직접 경로당을 찾아 안부를 확인해 주어 고맙다"며 "덕분에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숙 시기동장은 "무더운 여름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순창 공설운동장에서 '순창 지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순창군이 9일 순창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에서 '제25회 순창군 지회장배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신장이 순창군 의회의장, 11개 읍·면별 선수 및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가 주최하고, 순창군과 순창게이트볼연합회의 후원으로 지원되는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의 열정과 활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행사와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기전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제빵 체험

전주기전대학 호텔제과제빵과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80여 명을 초대, 제빵 체험활동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체험활동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제약이 따랐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들렛 만들기 체험은 아이들이 자기가 만든 마들렛을 직접 가져갈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더불어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제과제빵사의 역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 이번 체험활동을 진행한 전주기전대학 호텔제과제빵과 이관복 교수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제한됐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즐거움을 되찾고 또 자신들의 꿈을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됐다"며 "지속적인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에 더욱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하림-토종닭협회, 용지면에 300마리 지정 기탁

(주)하림(대표 정호석)과 한국토종닭협회(협회장 문정진)는 지난 8일 관내 어르신들과 시설안소자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토종닭 300마리를 용지면에 지정 기탁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정제된 토종닭 소비시장의 확대를 비롯해 토종닭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며, 하림은 신선함과 최고의 식재료, 웰리티 등을 자랑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문정진 협회장과 정호석 대표는 "정성을 모아 준비한 토종닭으로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나눔문화가 널리 퍼질 수 있게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탁된 토종닭 300마리는 용지면 4개 마을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됐으며,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더운 여름날 이렇게 한마음으로 토종닭을 기부해주셔서 감사하며 마을별로 배부를 위해 힘써 주신 용지면 직원들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초록우산 익산후원회 등 닭가슴살 뷔음밥 기탁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회장 유기달)와 헬스앰부티 주식회사(대표 고통명)는 지난 8일 익산시청을 방문하여 닭가슴살 뷔음밥 9,050개를 기탁했다. 기탁된 뷔음밥은 헬스앰부티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식품을 정성껏 준비해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할 예정이다. 유기달 회장은 "폭염으로 지치고 힘든 어린이와 어르신 등 저소득 이웃들이 맛있게 드시고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다"며 고통명 대표도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만든 뷔음밥을 드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익산후원회를 통해 매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나눔활동을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후원해주신 후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농협은행 임실지부, 지역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NH농협은행 임실군지부(지부장 이진산)는 지난 8일 임실군청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각 학교장(동중, 삼진, 관촌)의 추천을 받아 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경찰서,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원 참여 회의

남원경찰서(서장 김철수는)는 지난 8일,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서 견학 및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활동 등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책자문단원은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 2차 회의는 최근 이슈가 되는 청소년 용의범의 발생 예고글 등 SNS를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자문단원 SNS게시물을 통한 또래 청소년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1차 회의시 정책자문단원들이 제안한 정책 내용인 정책자문단원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과학수사대 견학과 지문 감식 체험 등을 진행했고, 112종합상황실 및 수사과 등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경찰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또한 청소년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범 지역 및 관광지 일대를 방문해 가시적 순찰활동 및 성범죄 홍보활동 등 전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